

도내 초·중학교 중기 학생배치계획 수립 착수

전북자치도교육청,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배치업무담당자와 협의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중학교 중기 학생배치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창조내 회의실에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배치 업무담당자들과 협의회를 갖고, '2025~2029학년도 초·중학교 중기 학생배치계획 수립'을 논의했다. 중기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5년간 학생 수 추이를 예측해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는 적절한 학생배치지표

를 마련, 양질의 수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들과 지역 현안 및 주요 검토 사항을 공유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6월 중 기초자료 작성을 마무리하고, 7~8월 중 학생배치 기준 검토 및 보완작업을 거쳐 9월 중기 학생배치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기 학생배치계획은 학교생활

을 시작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교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2023학년도부터 전북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당 학생수 20명 적용 확대 여부를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전망이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중기 학생배치계획을 토대로 학급편성 기준을 마련해 교육재정 운용 및 교원 수급 등 교육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종합연구소는 '2024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학교사회복지와 학생맞춤통합지원'

전주대,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종합연구소는 '2024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0일 전주대에 따르면 최근 온누리홀에서 550여 명의 학교사회복지학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술대회는 '학교사회복지(교육복지)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1부 세션에는 생교육복지연구소 박경현 소장이 '학교사회복지, 지금 변화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으며, 이어 경제선지능 아동에 대한 지원과 학교사회복

지에 관한 내용으로 2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2부 세션에서는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 새움센터의 '학교와 함께 했던 학생 맞춤지원'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학생맞춤 통합지원, 학교사회복지 실천의 변화와 균형'이라는 주제로 정책의 흐름과 변화, 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과제에 대한 발표, 학교 현장의 실천 사례 등을 공유했다.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김광혁 학회장(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이번 학술대회가 학교사회복지와 학생

맞춤통합지원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학교사회복지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해 학생의 행복과 복지를 책임지는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는 1997년 창립된 학교사회복지 분야 유일의 전국 규모 학술지로, 현재 1,300명의 전문 연구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술단체다. 최근 학교사회복지사가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인증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부속 생체안전성연구소가 일본 야마구치대학 내열성 미생물 센터와 손을 맞잡았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 부속 생체안전성연구소, 일본 야마구치대 내열성미생물센터와 '맞손'

연구자·학생 파견, 공동 세미나 개최 등 교류 박쥐 병원체 이용한 박쥐 이동사 공동연구 수행

전북대학교 부속 생체안전성연구소(소장 김범석)가 일본 야마구치대학 내열성 미생물 센터(센터장 Hiroyuki Azakami)와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생체안전성연구소 김범석 소장과의 연구는 최근 일본 야마구치대학을 방문해 이 대학 내열성 미생물 센터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강점을 활용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자 및 학생 파견, 공동 세미나 및 심포지움 개최 등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동 세미나도 개최해 각 기관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동연구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앞서 전북대 임재구 교수와 야마구

치대학 히로시 시모다(Hiroshi Shimoda) 교수는 수년 전부터 야생박쥐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전염성 미생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다. 더불어, 공동연구 일환으로 정장기핵심연구교수가 야마구치대학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임재구 교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박쥐 병원체를 이용한 박쥐 이동사 연구 등 박쥐와 관련된 한일 양국간 국제공동연구를 활발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범석 소장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매개성 질환 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올 여름에는 수의과 학생들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양 대학의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 청렴콘텐츠 공모전 도전하세요" 전북자치도교육청 내달 8~12일 공모 실시 교직원 등 누구나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 전북교육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청렴에 대한 교육 가족의 관심도를 높이고,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청렴을 주제로 공정한 사회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 생활 속의 청렴 및 부패방지 관련 내용 등을 담아내면 된다. 공모전에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청렴송 솟품 영상, 청렴 포스터(슬로건) 캘리그래피, 청렴 포스터 등 3개 분야다. 청렴송 음원은 감사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작품을 제작해 7월 8~12일 전북교육청(감사관/청정전북교육청/청렴콘텐츠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다만, 타 공모전 수상 작품(유사작품 포함)은 제출할 수 없으며,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동일·유사한 내용의 표어는 먼저 제출된 작품을 우선 인정한다. 응모된 작품에 대해서는 7월 중 별도 심사를 거쳐 분야별 최우수 1작품, 우수 2작품, 장려 2작품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선정된 작품을 교육청 청렴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청렴누리 문화계에도 전시한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IB 관심학교 18곳 추가 선정

전북자치도교육청, 초등 7·중등 6·고교 5곳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공모를 통해 IB 관심학교 18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학교로 △초등학교는 덕과초, 이리남초, 이리영동초, 이백초, 전주교대군산부설초, 전주교대전주부설초, 회현초 △중학교는 백산중, 자유중, 전주덕일중, 지평선중, 함열여중, 회현중 △고등학교는 양현고, 전주여고, 전주중앙여고, 자유고, 지평선고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5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 IB 관심학교는

2023년 선정된 10개교를 포함해 총 28개교로 확대됐다. IB 관심학교는 △B철학 공유 △수업과 평가 혁신을 위한 IB 교사 연수 △IB 관심학교→후보학교→인증학교 단계별 운영 등 크게 3가지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오는 20일 전주비전대 행복기숙사에서 IB 관심학교 관계자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IB 프로그램 도입으로 전북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학교 현장에 IB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평생교육원 여름학기 수강생 모집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황갑연)은 오는 17일까지 2024학년도 여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름학기 교육강좌는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운영된다. 10일 평생교육원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책임지고 학습 수요를 반영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복지학부, 생활교양학부, 어문학부, 스포츠건강학부, 예술학부, 직업교육학부 등 6개 학부, 151개 강좌를 마련했다. 특히 지역민의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황갑연 원장은 "평생교육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할 계획"이라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위해 평생교육원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강신청은 전북지역 성인이면 누구나 인터넷(<https://ec.jnu.ac.kr/>), 전화(063-288-0022), 방문(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 13) 접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10년 연속 '대학운동부 평가·지원사업' 선정

우석대 체육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주관 사업비 7100만원 지원받아... 훈련비 등 지원

우석대학교 체육부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의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에 10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국 대학 운동부를 대상으로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학운동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10일 우석대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서 4개 평가 영역, 14개 평가지표, 세부평가 항목 42개로 구성된 대학운동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운동부 운영

에 대한 정량과 정성, 대학실사, 종합평가 등 4단계 평가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우석대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로부터 사업비 7,100만원을 지원받아 배구(남·여)·축구·태권도·사격·검도 등 총 6개 종목에 소속된 학생 선수들의 훈련비와 훈련용품비, 대회출진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현철 체육부장은 "학생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K-핵심인재 자기 성취포상제 오리엔테이션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근 국립군산대 제2학생회관 내 취업 전산실에서 2024학년도 진로·취업동아리 K-핵심인재 자기 성취포상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핵심인재 자기 성취포상제는 동일 직무·직종별 취업동아리 구성을 통해 취업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동아리별 목표에 따른 맞춤형 진로 설계 및 취업 준비를 도와주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선발된 28명의 학생들은 프로그램 및 일정 안내와 담당 컨설턴트를 배정 받았으며, 동일 직무로 취업을 준비하는 참여자들과 팀을 조직하는 행사를 가졌다. /군산=이재훈 기자

'대입 이슈 알려드립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13일 의약학계열 설명회 개최 15면 전북대·전주대 등 전북권 대학 설명회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3일 오후 7시 도교육청 창조내 시정각실에서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의약학계열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15일에는 전북권 주요 대학 입시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의약학계열 입시설명회는 서울 세화고등학교 정창욱 교사가 강사로 참여, 2시간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1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대·원광대?전남대?조선대 등 호남권의 대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총 443명이다. 특히 전북대 의예과는 171명 모집에 111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이중 전북지역 고교 졸업예정자나 졸업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전북권 모집인원은 93명이다. 원광대 의예과도 157명 모집에 102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며, 이중 전북권 지역인재전형이 65명이다. 올해 의예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전북지역 학생들의 기회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이날 의약학계열 설명회를 통

해 효율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15일 오후 1시부터 창조내 시정각실에서 진행되는 전북권 대학 설명회에는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전주교대, 전북대 등 도내 6개 대학이 참여한다. 특히 각 대학별로 입학사정관이 직접 참여해 대입전형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과별 지원전략 및 자율전공선택제 등 양질의 진학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번 입시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학부모·교사를 위해 설명회 실시 1주일 뒤 유튜브 전북교육 대입정보 TV에 동영상상을 탑재한다는 방침이다. 유호선 중등교육과장은 "최근 급격한 입시 변화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설명회를 통해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대입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동문 선배 초청 '점프업 취업 특강'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근 다양한 직군에서 활동 중인 동문 선배들을 초청해 '점프업 취업 특강'을 진행했다. 이 특강 시리즈는 선배들의 실제 취업 경험을 바탕으로 직군별 직무정보와 취업전략을 후배들과 공유함으로써 취업 시장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술 및 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강은 소방공무원 환인택 선배, 산업안전 총무직 윤서근 선배, 소방설비직 김재원 선배, 보건산업위생직 김수필 선배, 병원행정직 유승희 선배 등이 참여해 후배들에게 생생한 취업 경험과 직무정보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특강은 단순한 강연을 넘어 선배와 후배 간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경험 전달을 통해 취업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익산=이재훈 기자